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 Vol. 13, No. 4, 1045 - 1063

한국인 용서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오 영 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한국인 용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참여자는 남녀 대학생 284명과 부모 219명(총 503명)이었다.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한국인 용서 척도, 1문항 용서 질문,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분노 척도, 불안 척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인 용서 척도는 높은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 α=.95)를 보여주었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양호하였다(r=.84).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1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명변량 44.27%). 1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성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또 한국인 용서 점수가 높을수록 1문항 용서 질문에서 더 많이 용서했다고 보고하였고, 용서 집단과 비용서 집단의 용서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한국인 용서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양호하였다. 또한 용서 점수는 분노, 불안, 우울 점수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준거관련타당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용서, 척도개발, 타당화, 예비연구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갈등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오랫동안 한 개인의 적응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갈등이 한 개인에게 부당하고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로 볼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상처를 받는 경우에는 자녀의 적응

† 본 연구는 2008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오영희, (132-714)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9 덕성여대 심리학과, Tel: 02-901-8305, E-mail: yhoh@duksung.ac.kr

www.kci.go.kr

과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애정결핍을 다룬 일련의 연구에서 애정결핍은 청소년 비행(Walsh & Beyer, 1987)이나 우울과 불안(Rohner, 1975)과 관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107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갈등은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박영신, 김의철, 2000). 또한 부모에게서 부당한 대우(무시, 불신, 거부, 차별 등)를 받은 경험은 자녀들의 부적응(분노, 불안,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경, 민병배, 2006; 오영희, 2004, 2007).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용서를 활용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Al-Mabuk, Enright와 Cardis(1995)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 상처받았다고 보고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용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인간관계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보다 용서, 자아존중감, 희망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Lin(1998)은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서 프로그램과 사회적 관점 채택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두 프로그램 모두에서 우울과 상태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용서집단은 사회적 관점 채택집단보다 특성불안과 특성분노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부모와의 애착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Osterndorf(1999)도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를 가진 성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용서 프로그램과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용서집단은 갈등해결집단에 비해 용서, 자아존중감,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관계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부정적인 갈등을 경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용서는 자녀들의 분노, 불안, 우울을 완화시켜주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오영희, 2004, 2007).

아주 부당하고 심각한 상처의 예로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극심한 분노와 증오를 느끼고,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심지어 살인자를 직접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도 느낀다. King(2003/2006)은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모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용서는 이 책의 주인공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공통점이다.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이를 죽인 살인범을 용서했다. 많은 사람이 살인범과 화해를 시도했고, 어떤 사람들은 살인범이 사형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변호하기까지 했다...
>
> 용서의 역설은 그것이 가장 이타적인 행동 같아 보이지만, 실은 매우 이기적인 것이라는 데에 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은 고통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 결과 살인범에 의한 상처를 한번 더 받게 된다. 살인범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갈 뿐 아니라 그들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앗아간다. 빌 펠케(이 책 5장)는 할머니를 죽인 소녀에 대해 “폴라 쿠퍼를 용서하는 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p. 17)

위의 글에서 보는 것처럼 용서는 특히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이다. 용서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내적인 것으로 용서는 적극적인 자기치유와

www.kci.go.kr

자기회복을 통해 한 개인이 부당하게 입은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박종효, 2003; Enright & Fitzgibbons, 2000). 심지어 King은 용서가 매우 이타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용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대인관계적인 것으로 용서는 갈등과 상처로 인해 파괴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Gouldner, 1973). King에 따르면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한 사람들은 살인범들과 화해를 시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사형제도 폐지와 회복적 정의[1] 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뿐만 아니라 종교, 지역, 국가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Shriver, 1995).

이처럼 용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용서에 대한 논의는 신학과 철학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 용서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은 뒤늦게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에야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사례연구, 상관 연구, 실험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용서가 분노, 우울, 불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집착, 충동적인 행동,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희망,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성, 분노감정의 통제, 부부와 가족관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오영희, 2004, 2007; Controneo, 1989; Enright & Fitzgibbons, 2000). 즉, 심리학적 연구들은 용서가 한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을 향상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까지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용서와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적응 지표는 분노, 우울, 불안이다. 이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외국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를 보면 용서는 분노와 -.26 ~ -.44, 우울과 -.34 ~ -.51, 불안과는 -.15 ~ -.43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Mullet, Neto & Rivere, 2005).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박종효, 2006; 오영희, 2004, 2007).

또한 용서는 신체건강을 향상시켜주는데, 그 생리학적 매개과정을 살펴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반응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교감신경, 심혈관, 면역 및 내분비체계에 영향을 주어 건강을 해치는 반면에 용서반응은 교감신경의 각성 수준을 낮추고 생체 적응성을 회복하여 신체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박종효, 2003).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로 '한'을 이야기하고, 한과 관련된 '화병'이라는 고유한 정신장애를 논의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당한 상처를 받고난 뒤 그 상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민성길, 1991). 용서는 부당하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기치유와 자기회복의 문제해결방법으로서 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오영희, 1995).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용서가

1)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특정 범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피해자, 가해자,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김준호 등, 2003).

www.kci.go.kr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용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조금씩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김광수, 2002; 김광수, 하용상, 2006; 김광수, 이명경, 정태희, 정여주, 우홍련, 2007; 김기범, 임효진, 2006;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서정선, 신희천, 2007; 오영희, 2004, 2006, 2007; 장선숙, 김향숙, 홍상황, 200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용서 연구들은 외국의 용서 척도와 용서과정모형에 기초한 용서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김광수, 1999; 오영희 2006).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용서 척도이다. 용서라는 추상적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신뢰롭고 타당하게 용서를 측정할 수 있는 용서 척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서 척도들은 외국 척도들을 번역한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서 척도는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EFI)이다. EFI는 자신에게 부당하고 심각한 상처를 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Enright, 2000; Subkoviack et al., 1995). 성인용은 60문항(정서, 인지, 행동영역 각 20문항씩), 아동용은 30문항(정서, 인지 행동영역 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박종효(2006, 2007)가 성인용과 아동용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EFI를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문항의 부적절성이다. EFI의 일부 문항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낯설고 부적합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중요한 용서반응들이 빠져있다(오영희, 2004, 2006, 2007). 둘째, EFI 척도의 하위요인의 타당성이다. EFI는 인지 20문항, 정서 20문항, 행동 20문항으로 되어 있고 전체 용서 점수외에 각 하위영역별 하위점수를 구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들은 정서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을 구분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다. 예를 들어, 오영희(2006)가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난 뒤 그 사람에 대한 ① 생각 ② 감정 ③ 행동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참여자들이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일부는 두 내용이 동일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EFI를 개발한 Enright는 본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면담에서 미국인들의 경우는 인지와 정서를 구분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성주의적이고 이분법적인 구분이 명확한 서양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인지와 정서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이성과 정서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지와 정서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용 EFI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용서를 1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효, 2006).

마지막으로 EFI의 문항수가 너무 많다. 성인용 EFI는 60문항으로 되어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예: 말기암 환자, 정서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용서연구에

www.kci.go.kr

서 사용하기가 무척 어렵다. 많은 연구에서 EFI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α*)는 .98 ~ .99로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참여자들조차 문항을 작성하면서 지루함과 피로함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오영희, 2004, 2007). 또한 EFI 자체의 문항이 많기 때문에 연구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척도가 제한되어서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용서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간결하고 타당한 용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서문헌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나온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 용서 척도를 개발하고, 우선 일부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예비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용서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다양한데, 용서의 어떤 측면을 연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용서를 하는 사람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용서는 크게 다르다. 둘째,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연구할 때도 누구를 용서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대인용서, 자신을 용서하는 자기용서, 상황을 용서하는 상황용서, 신을 용서하는 용서 등이 있다. 셋째, 용서를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성격 특성이나 성향으로 볼 수도 있고, 특정한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특수상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서는 많은 경우에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상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인용서에 국한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용서연구가 특정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일반특성으로서의 용서보다는 특수상황적 용서에 대한 척도를 먼저 개발하고자 한다[2].

용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용서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의들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용서를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후에 생겨나는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김광수, 2002; Enright & Fitzgibbons, 2000).

이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행위이다. 특히 용서는 부당하고 심각한 상처의 경우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이다. 부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에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 용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라고 하는 한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생겨나기 때문이다(오영희, 1995; 최상진, 1991). 또한 용서는 쉽게

2) 용서를 일반적인 특성이나 성향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외국 척도로는 Tangney, Fee, Reinsmith, Boone와 Lee(1999)의 Multidimensional Forgiveness Inventory(MFI), Deshea(2003)의 Willingness to Forgive Scale(WFS), Thompson과 Snyder(2003)의 Heartland Forgiveness Scale(HFS)가 있다. HFS는 자기, 타인, 상황에 대한 용서성향을 다룬 18문항의 척도로서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정한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외국 척도에는 Subkoviak 등(1995)의 EFI, McCullough 등(1998, 2000)의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TRIM) 등이 있다.

www.kci.go.kr

잊어버리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소한 상처보다는 정신과 신체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더 효과적이다 (Enright & Fitzgibbons, 2000).

둘째, 용서는 상처를 받은 후에 생겨나는 부정적 반응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반응이 생겨나는 것이며,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을 모두 포함한다. 즉, 용서는 심각하고 부당한 상처를 받은 뒤에 생겨난 부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이 긍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에 대한 나쁜 생각, 분노, 보복 행동을 멈추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서, 인지, 행동은 상호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총체적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대부분의 외국 연구자들은 용서와 화해를 명확히 구분한다 (Enright & Fitzgibbons, 2000; Enright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Smedes, 1984; Trainer, 1981; Worthington Jr., 2003). 이들에 따르면 용서는 개인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내적인 치유지만, 화해는 2명 이상의 당사자들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외적이고 행동적인 과정이며 관계가 치유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과 관계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나 화해는 상대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용서는 화해의 가능성만을 열어놓을 뿐이며 화해는 용서보다 더 많은 조건(예: 상대방의 화해의도)을 필요로 한다.

Sandage와 Williamson(2005)은 최근에 용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문화에서는 용서와 화해가 명백하게 구분되지만, 집단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문화에서는 용서와 화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김광수(1999)가 대인관계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는 Enright 용서과정 모형에 기초한 용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결과 참여자들에게서 화해를 지향하는 성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추수모임에서 사람들은 “화해가 안된 용서는 왠지 개운치가 않다”, “혼자서 맺힌 것을 푸는 것이 가능할까?”,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이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오영희(2006)가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용서는 예전과 같거나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화해)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동서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용서와 화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두개의 개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용서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화해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한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본다. 용서는 피해자가 화해를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화해의 가능성만을 열어놓을 뿐이며, 화해는 용서보다 더 많은 조건(예: 상대방의 화해 의도나 상황)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두 개념을 분리하는 이유는 용서와 화해를 더 정확하게 연구하기 위해서이다.

용서와 화해는 종종 함께 일어나지만 때로는 화해없는 용서나 용서없는 화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경

www.kci.go.kr

우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용서는 가능하지만 화해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배우자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형식적으로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용서없는 화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용서와 화해는 서로 연관되지만 배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를 분리해서 연구하는 것이 두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념이 더욱 밀접하게 연관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용서뿐만 아니라 화해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하면서도 간결하고 양호한 한국인 용서 척도를 개발하고, 일부 지역에서 참여자를 표집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예비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첫째, 신뢰도는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사용해서 검증하였다. 둘째,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 1문항 용서 질문과의 상관, 용서와 비용서집단의 차이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셋째, 준거관련타당도는 용서와 부적응 변인들(분노, 불안, 우울)의 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방 법

참여자

서울과 충청도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또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지)를 대상으로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767부중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선정하였다. 심각한 상처의 기준은 용서 척도에 있는 "그 일로 인해 당신은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점(전혀 상처받지 않음)에서 5점(대단히 많은 상처를 받음)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심각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일부를 제외하여 최종 참여자는 총 503명으로 대학생 284명(남자 161명, 여자 123명)과 부모 219명(남자 97명, 여자 122명)이었다. 대학생의 평균연령은 21.39(표준편차 2.25, 범위 18-27세)이고, 부모의 평균연령은 48.21(표준편차 3.94, 범위 40-58세)이었다. 대학생들은 전 학년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부모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에서 대학원 졸업까지 다양하였으나, 고등학교 졸업(47.7%)과 대학교 졸업(36.9%)이 대부분이었다. 종교는 대학생의 경우 개신교 29.6%, 가톨릭 12.7%, 불교 8.8%, 기타 1.1%, 무교 43.6%였고, 부모의 경우는 개신교 29.2%, 가톨릭 16.4%, 불교 22.4%, 무교 32.0% 이었다. 연령별로 종교의 유무차이를 분석해 보았더니 부모는 대학생보다 종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chi^2(1, N=503)=12.97, p<.001$. 연령에 따라 종교의 형태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의 경우 불교를 더 많이 믿고 있었다, $\chi^2(2, N=294)=10.43, p<.001$.

측정도구

한국인 용서 척도. 예비문항의 선정은 용서에 대한 참고문헌들과 오영희(2006)가 우리나라 20, 40, 50대 성인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용서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나온 경험적 자료를

www.kci.go.kr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난 뒤 그 사람에 대한 ① 생각 ②감정 ③행동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라고 묻고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였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정서적(42.5%,), 행동적(41.3%), 인지적 영역(14.9%)의 순으로 대답하였다[3]. 이와 같은 결과는 용서에서 정서, 행동, 인지반응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영희의 참여자가 270명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EFI가 하위영역별로 동일한 비율의 문항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예비문항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3개 영역에서 긍정과 부정문항 7개씩 총 42개의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이후의 분석결과에 따라 문항비율을 결정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5년 이상 용서연구를 하고 있는 용서전문가 2명에게 문항 검토를 받아 6개 문항을 제거하였다(정서, 인지, 행동 각 2개씩).

최종문항 선정을 위한 예비연구에서는 용서척도, 1문항 용서 질문,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응답하는 경향이 용서 척도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용서 척도는 EFI를 참고로 하여 두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5문항)은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기술과 평가를 하는 부분으로서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고,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기술한 뒤에 상처의 심각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용서반응(정서, 인지, 행동반응)을 측정하는 36문항으로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1문항 용서질문은 "지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얼마나 용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점('전혀 용서하지 않음')에서 5점('아주 많이 용서함')까지의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최종문항 선정을 위한 예비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과 충청도에 있는 2개 대학에 다니는 학생 260명이었다. 용서와 비용서의 상황을 구별하기 위해서 절반인 130명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받고 난 뒤 용서한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용서 척도를 작성하게 하였다. 동시에 다른 130명의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받고 난 뒤 용서하지 못한 경험을 떠올리게 한 다음 용서 척도를 작성하게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에서 상처가 심각하고 '용서/비용서'라고 응답한 경우만 선별하였다. 상처의 심각성 기준은 "그 일로 인해 당신은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점('전혀 상처받지 않음')에서 5점('대단히 많은 상처를 받음')까지의 평정척도에서 3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용서의 기준은 "지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얼마나 용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것이고, 비용서의 기준은 2점 이하라고 응답한 것이다. 최종 분석대상은 총 132명(용서집단 86명, 비용서집단 46명; 남자 54명, 여

3) 정서적 영역에는 미움, 분노감, 배신감 등의 부정적 정서가 없어진다는 반응들이 있었고, 행동적 영역에는 만나면 웃기, 말하기, 관계 개선, 정상적 생활 등의 반응들이 있었으며, 인지적 영역에는 이해함, 잊어버림, 잘되기를 바람 등의 반응들이 있었다.

www.kci.go.kr

자 78명)이었다.

예비연구를 실시한 후에 다음의 5가지 기준에 의해 문항을 제거하였다:

① 평균이 극단적이거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작은 문항
② 문항-전체 상관이 .30이하인 문항
③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05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문항(r=.18 이상).
④ 용서집단과 비용서집단에 대한 t검증결과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문항
⑤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1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4)]

이러한 기준에 따라 10개의 문항(정서 3개, 인지 4개, 행동 3개)이 제거되고 본 검사에서는 총 26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영역별로는 정서 9개(긍정 4개, 부정5개), 인지 8개(긍정3개, 부정 5개), 행동 9개(긍정 6개, 부정 3개)문항이었다.

타당화 예비연구의 용서 척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상처를 기술하는 5문항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용서반응을 측정하는 26문항이다.

1문항 용서 질문. 가해자를 어느 정도 용서했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1문항으로 "지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얼마나 용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점('전혀 용서하지 않음')에서 5점('아주 많이 용서함')까지의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문항선정 예비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Marlowe-Crowne의 Social Desirability Scale을 설현수, 김성은, 김동민(2005)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한 33문항의 자기보고형 척도로서 응답점수는 '예'에 1점, '아니오'에 0점을 부여하였다. 설현수 등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73이었고,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1이었다.

분노 척도. Spielberger의 STAXI 척도를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번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분노 하위 검사(상태분노, 특성분노)와 분노 표현양식 하위 검사(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로 이루어진 자고보고형 검사인데, 본 연구에서는 검사할 당시의 분노감정을 측정하는 상태분노 10문항과 평상시의 분노감

4) 요인분석은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하였는데 고유가(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8개가 추출되었다 그러나 스크리 분석 결과 1요인이 대부분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 1요인의 고유가는 13.56(설명변량 37.65%)이었으나 2요인부터는 고유가와 설명변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요인의 고유가는 2.40(설명변량 6.66%), 3요인의 고유가는 2.34(6.51%), 나머지 요인들은 고유가가 2이하였다. 예비척도를 만들 때 인지, 행동, 정서의 3요인을 가정하고 있었으므로, 요인을 3개로 지정하고 주축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1요인의 고유가는 11.73(설명변량 32.58%), 2요인의 고유가는 2.81(설명변량 7.80%), 3요인의 고유가는 2.50(6.94%)로 나타났다. 사교회전(promax rotation)을 하고서 요인부하량 .30 이상을 가진 문항수를 계산해 보니 1요인에 27개 문항, 2요인에 3개 문항, 3요인에 3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2요인과 3요인에 속한 문항들은 그 숫자도 적었지만 인지, 행동, 정서의 문항들이 혼합되어 있었다. 따라서 용서는 1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명되어 요인수를 1개로 고정하고 주축요인분석을 통해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는 변량은 36.26%이고,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은 6개로 나타났다.

www.kci.go.kr

정을 측정하는 특성분노 10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거의 언제나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전겸구 등이 보고한 상태분노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는 .89이고, 특성분노 검사의 신뢰도는 .82 이었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상태분노 검사 .93, 특성분노 검사 .85로 나왔다.

상태분노 점수는 상태분노 검사문항들의 총점이고, 특성분노 점수는 특성분노 검사문항들의 총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가 높은 것이다(범위: 각 10-40점). 박종효(2006)는 EFI 타당화 연구에서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를 합친 점수를 이용하였는데, 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상태분노 점수와 특성분노 점수를 합친 총분노 점수를 구했다(범위: 20-80점).

불안 척도. Spielberger 의 상태-특성불안 검사 Y형을 한덕웅, 이장호, 전겸구(1996)가 번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상태불안 검사는 검사할 때의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 특성불안 검사는 평상시의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한덕웅 등이 보고한 상태불안 검사 신뢰도(Cronbach α)는 .92이고, 특성불안 검사 신뢰도는 .90 이었다. 본 연구에서 상태불안 검사 신뢰도는 .93, 특성불안 검사 신뢰도는 .92이었다. 상태불안 점수는 상태불안 검사문항들의 총점이고, 특성불안 점수는 특성불안 검사문항들의 총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이다(범위는 각 20-80점). 총불안 점수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점수를 합친 것이다(범위는 40-160점).

우울 척도.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 검사를 사용하였다. CES-D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로서 정신병리적인 우울보다는 일반인들의 우울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판 검사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영어판 검사도구를 일부 새롭게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0점('극히 드물게') 에서 3점('거의 대부분')까지 Likert식 4점 척도를 이용해서 평정하였다. 전겸구 등(2001)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91이었고, 이 연구에서도 .91이 나왔다. 우울 점수는 문항총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이다(범위: 0-60점).

절차와 자료분석

2007년 11월에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일부는 교실에서 집단으로 작성하게 하고, 일부는 집에서 작성해 오게 하였다. 부모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통해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부모 또는 40-50대 친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뒤에 가져오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dows 12.0와 AMOS 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방법은 평균, 표준편차, χ^2, Cronbach α, Pearson r, t 검증, F검증, 요인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결 과

문항분석

문항의 양호도를 점검하기 위해 먼저 예비연

www.kci.go.kr

구에서 선택된 26문항의 평균을 살펴보았더니 범위가 2.01-3.60으로 바닥이나 천정효과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문항 표준편차들의 범위는 1.14-1.38로서 반응들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문항-총점상관을 보니 문항선정기준인 .30이하인 문항이 2개(인지 1개, 행동 1개)가 나와서 이를 제거하고 최종분석은 총 24개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최종 용서 척도의 문항은 정서 9개(긍정 4개, 부정 5개), 인지 7개(긍정 3개, 부정 4개), 행동 8개(긍정 6개, 부정 2개)이다. 한국인 용서 점수는 24문항을 합한 총점으로 범위는 24점-120점이다. 부록 1에는 최종 24문항의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이 제시되어 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

한국인 용서 점수가 성별과 연령(대학생: 부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F(1, 499)=.11$, $p>.05$, 연령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F(1, 499)=2.27$, $p>.05$. 또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F(1, 499)=1.53$, $p>.05$. 이에 따라 이후의 분석은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뢰도

최종 용서 척도(24문항)의 Cronbach α는 .95로 높은 문항내적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대학생 49명에게 2주 간격으로 용서 척도를 실시하여 상관을 구한 결과 $r=.8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타당도

최종 용서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척도의 문항이 예비 척도와 다르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는데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 결과 고유가(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4개가 추출되었다. 그러나 스크리 분석 결과 1요인이 대부분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 1요인의 고유가는 11.12(설명변량 46.34%)이었으나 2요인부터는 고유가와 설명변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요인의 고유가는 1.93(설명변량 8.02%), 3요인의 고유가는 1.12(4.67%), 4요인의 고유가는 1.05(설명변량 4.38%)이었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1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1요인으로 고정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설명변량은 44.27%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AMOS 4.0을 이용하여 1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χ^2와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만족스러운 적합도지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TLI(Tucker-Lewis Index 또는 NNFI),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라고 본다(홍세희, 2000).

표 1을 보면 1요인 모형의 χ^2 나 RMSEA는

www.kci.go.kr

좋은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TLI와 CFI에서는 좋은 적합도를 보여서 모형의 적합성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표준화 계수의 범위는 .33-.80이며, 모두 유의미하였다(부록 1에 각 문항의 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가해자를 얼마나 용서하였는지를 물어보는 1문항 용서 점수(범위 1-5점)와 한국인 용서 점수(범위 24-120점)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더니, 유의하게 높은 상관이 있었다(r=.74, p<.001). 즉, 한국인 용서 점수가 높을 수록 용서했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용서 점수가 용서집단과 비용서 집단을 구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문항 용서 점수를 이용해서 용서집단(4점이상)과 비용서집단(2점이하)로 나눈 후에 두 집단 간에 한국인 용서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계산해 보았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2.91, df=501, p<.001. 용서 집단(평균 85.48, 표준편차 16.51)은 비용서집단(평균 47.09, 표준편차 12.28)보다 용서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준거관련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인 용서 척도 점수와 부적응 점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표 2에서 용서와 분노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용서는 상태분노와 r=-.25, 특성분노와 r=-.19, 총분노와는 r=-.26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용서와 불안과의 상관을 보면 용서는 상태불안과 r=-.26, 특성불안과 r=-.24, 총불안과 r=-.27의 관계를 가

표 1. 1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1598.17(252)	.000	6.34	.95	.95	.10

표 2. 연구변인들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1. 용서	1.00							
2. 상태분노	-.25***	1.00						
3. 특성분노	-.19***	.44***	1.00					
4. 총분노	-.26***	.84***	.86***	1.00				
5. 상태불안	-.26***	.56***	.32***	.52***	1.00			
6. 특성불안	-.24***	.47**	.32***	.46***	.82***	1.00		
7. 총불안	-.27***	.54***	.34***	.51	.95***	.95***	1.00	
8. 우울	-.22***	.51***	.28***	.46***	.66***	.71***	.72***	1.00
평균	68.81	14.01	19.90	33.91	42.07	44.18	86.25	36.16
표준편차	20.51	4.76	5.01	8.31	10.48	10.26	19.77	10.01

N=503, ***p <.001

www.kci.go.kr

지고 있었으며,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용서와 우울의 상관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2$, $p<.001$).

요약하면 용서를 많이 할수록 분노, 불안, 우울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석

용서점수는 상처기간($r=-.16$), 상처의 심각성($r=-.30$), 상처의 부당성($r=-.43$)과 모두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상처기간이 길수록, 상처가 심각할수록, 상처가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용서점수는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와 종교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집단간 용서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더니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58$, $df=501$, $p>.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한국인 용서 척도를 개발하고 일부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 보았다. 먼저 신뢰도를 살펴보면 최종척도(24문항)의 Cronbach α는 .95로 높은 문항내적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대학생 49명에게 2주 간격으로 용서 척도를 실시하여 상관을 구한 결과 $r=.8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1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변량은 44.27%였다. 1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χ^2나 RMSEA는 좋은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TLI와 CFI에서는 좋은 적합도를 보여서 모형의 적합성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또 한국인 용서 점수는 1문항 용서 질문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r=.74$, $p<.001$)을 보였는데, 용서 점수가 높을 수록 더 많이 용서했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서 용서집단은 비용서 집단보다 용서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용서와 관련되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적응 지수인 분노, 불안, 우울과 용서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용서는 분노, 불안, 우울과 -.15 ~ -.27의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요약하면 한국인 용서 척도는 좋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 또 한국인 용서 점수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한국인 용서 척도가 20, 40, 50대의 남녀 성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서 척도는 EFI이다. EFI와 한국인 용서 척도는 모두 특정한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데, 어느 척도가 더 양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비교해 보았다. EFI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박종효(2006)의 타당화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

먼저 두 척도의 신뢰도를 비교해 보면 문항내적 일치도는 한국판 EFI는 .99이고 한국인 용서 척도는 .95였다. 두 척도의 타당도를 비교해 보면

www.kci.go.kr

1문항 용서점수는 한국판 EFI 총점과는 r=.73, 한국인 용서 척도 총점과는 r=. 74로 거의 동일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용서점수와 부적응 지표들과의 관계에서 한국판 EFI는 분노와 -.24, 불안과 -.35, 우울과 -.29의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인 용서 척도는 분노와 -.26, 불안과 -.27, 우울과 -.22의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상관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요약하면 EFI와 한국인 용서 척도는 모두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EFI는 문화적 적절성, 요인구조, 문항수 등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문항수도 훨씬 적고(EFI는 60문항, 한국인 용서 척도는 24문항), 내용과 표현에서 한국인에게 적절한 용서반응을 이용한 한국인 용서 척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용서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용서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참여자가 일부 지역의 소수의 인원만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성인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전국에서 표집하여 타당화연구를 실시하고, 전국적 규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인 용서 척도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므로 비록 익명성을 보장하기는 했지만, 참여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용서와 같이 사회적·종교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비록 한국인 용서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관련없는 문항만을 선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앞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관찰, 가해자나 제 3자의 보고 등을 통한 다차원적인 평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인 용서 척도와 다른 용서 척도들, 다른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분석 등을 통한 타당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용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용서를 하는 사람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용서가 다르며,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누구를 용서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대인용서, 자신을 용서하는 자기용서, 상황을 용서하는 상황용서, 신을 용서하는 용서 등이 있다. 또한 용서를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특성이나 성향으로 볼 수도 있고, 특정한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특수상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특수상황적 용서로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용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측면의 용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광수 (2002). 용서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상처경험자의 자존감, 불안, 분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0, 165-191.

김광수, 하요상 (2006). 용서 상담교육이 아동의 용서수

www.kci.go.kr

준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4), 909-930.

김광수, 이명경, 정태희, 정여주, 우홍련 (2007). 초등학교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정서교육 일 모형으로서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교육연구, 20(3), 297-323.

김기범, 임효진 (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0(2), 19-33.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21-236.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이동원, 박철현 (2003). 청소년 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용서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용서정도와 분노,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산형 집단상담과 집중형 집단상담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347-366.

민성길 (1991). 홧병과 한. 대한의학협회지, 34, 1189-1198.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7.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2.

박종효 (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1), 265-282.

박종효 (2007). 한국형 아동·청소년의 용서심리검사(EFI-C)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1(1), 265-281.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설현수, 김성은, 김동민 (2005). Rasch 모형을 이용한 Marlowe-Crowne의 사회적 정향성 척도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8(1), 101-123.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70-94.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오영희 (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2), 467-486.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장선숙, 김향숙, 홍상황 (2005). 초등학생용 교우관계 용서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99-200.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Spei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0), 60-78.

최상진 (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1991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pp. 339-350.

한덕웅, 이장호, 전겸구 (1996). Spielberger 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1), 161-177.

Al-Mabuk, R. H., Enright, R. D., Cardis, P. A. (1995). Forgiveness education with parentally love-deprived late adolescent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4(4).* 427-444.

Cotroneo, M. (1982). The role of forgiveness in family therapy. In A. J. Gurman (Ed.),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practice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xel, 241-244.

Enright, R. D. (2000).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for Children.* Madiosn, Wi: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0). *Helping*

www.kci.go.kr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W. Kurtines and J.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1)*. Hillsdale, NJ: Erlbaum.

Gouldner, A. W. (1973). *For sociology: Renewal and critique in sociology today.* London. Allen Lane.

King, R. (200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 [*Don't kill in our names*].(황근하 역). 서울: 샨티. (원전은 2003년에 출판)

Lin, W. N. (1998).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for late adolescents with insecure attachment in Taiw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tiy of Wisconsin-Madison, Madison, USA.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E. (Eds.) (2000),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Brown, S.W., et al .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Mullet, E., & Girard, M. (2000). Developmental and cognitive points of view on forgiveness.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Osterndorf, C. (1999). *Effects of a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SA.

Rohner, R. P. (1975). *They love me, they love me not: A world-wild study of the effects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New Haven, CT: Hraf Press.

Sandage, S. J. & Williamson, I. (2005). Forgiveness in cultural context.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Shriver, D. W. (1995). *An ethic for enemies: Forgiveness in politics.*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medes, L. B. (1984). *Forgive & forget: Healing the hurts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Harper & Row.

Subkoviak, M. J., Enright, R. D., Wu, C., Gassin, E A., Freedman, S., Olson, L. M., & Sarinopuolos, I.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 641-655.

Tangney, J. Fee, R., Reinsmith, C., Boone, A. L., & Lee, N. (1999).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ropensity of forgive.* Paper presented at 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Thompson, L. Y., & Snyder, C. R. (2003). Measuring Forgiveness.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rainer, M. (1981). *Forgiveness: Intrinsic, role-expected, expedient, in the context of divorce.*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Boston, USA.

Walsh, A. & Beyer, J. A. (1987). Violent crimes, sociopathy and love deprivation among

www.kci.go.kr

adolescent delinquents, *Adolescence, 22,* 705-717.

Worthington, Jr., L.(Ed.) (2005).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원고접수일: 2008년 9월 3일
수정원고접수일: 2008년 10월 25일
게재결정일: 2008년 11월 10일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 Vol. 13, No. 4, 1045 - 1063

A Preliminary study on Developing the Korean Forgiveness Scale

Young Hee Oh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o a preliminary study on developing the Korean Forgiveness Scale(KFS). The sample consists of 284 university students and 219 their parents. The measures include the KFS, one-item forgiveness question,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Spielberger Anxiety and Anger Scale, and CES-D. The results show that the KFS has high internal consistency(Cronbach α=.95) and good test-retest reliability(r=.84). Both explan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suggest that the KFS has one factor which explains 44.27% of total variance. The KFS is highly correlated to one-item forgiveness question. In addition, the KFS scor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forgiveness and non-forgiveness groups. Finally, the KFS is negatively correlated to anger, anxiety, and de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KFS has good reliability and validit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forgiveness,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preliminary study

www.kci.go.kr

부록 1. 한국인 용서 척도 24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상관, 요인부하량, 표준화계수

영역	문항	*M(SD)*	문항-전체 상관	요인 부하량	표준화계수
정서	1.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다.	2.91(1.27)	.75	.76	.73
	2. 그 사람을 보면 반갑다.	2.58(1.24)	.72	.77	.78
	3. 그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2.62(1.25)	.36	.34	.33
	4. 그 사람을 보면 힘들다.	3.28(1.27)	.54	.52	.50
	5. 그 사람에게 이전보다 좋은 감정을 느낀다.	2.10(1.14)	.65	.67	.68
	6. 그 사람에게 화가 난다.[E]	3.05(1.31)	.67	.66	.64
	7. 그 사람을 봐도 마음이 편안하다.	2.48(1.20)	.74	.75	.74
	8.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	2.79(1.25)	.51	.52	.56
	9. 그 사람을 보면 서먹하다.	3.03(1.32)	.59	.61	.60
인지	1.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	2.82(1.27)	.77	.79	.78
	2.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	2.72(1.30)	.76	.78	.78
	3. 그 사람이 잘되기를 바란다.[E]	3.17(1.27)	.69	.73	.75
	4.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E]	3.00(1.27)	.74	.78	.79
	5.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다.	3.26(1.35)	.45	.45	.44
	6.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25(1.23)	.55	.57	.57
	7. 그 상처를 잊기 어렵다.	2.89(1.34)	.51	.49	.47
행동	1. 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3.13(1.28)	.75	.79	.79
	2. 그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한다.	2.86(1.24)	.56	.58	.58
	3. 그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한다.	2.85(1.25)	.71	.76	.78
	4. 그 사람에게 편하게 연락한다.	2.44(1.34)	.71	.76	.76
	5. 그 사람과 모임이나 활동을 함께 한다.	2.28(1.36)	.56	.60	.60
	6.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2.81(1.23)	.73	.78	.78
	7. 이제는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3.60(1.21)	.41	.41	.40
	8.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는다.	3.23(1.39)	.76	.79	.80

1. [E]: EFI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항(3개)

2. 역산문항: 정서 1, 3, 5, 8, 11; 인지 1, 2, 5, 7; 행동 2, 8

www.kci.go.kr